

올고 웃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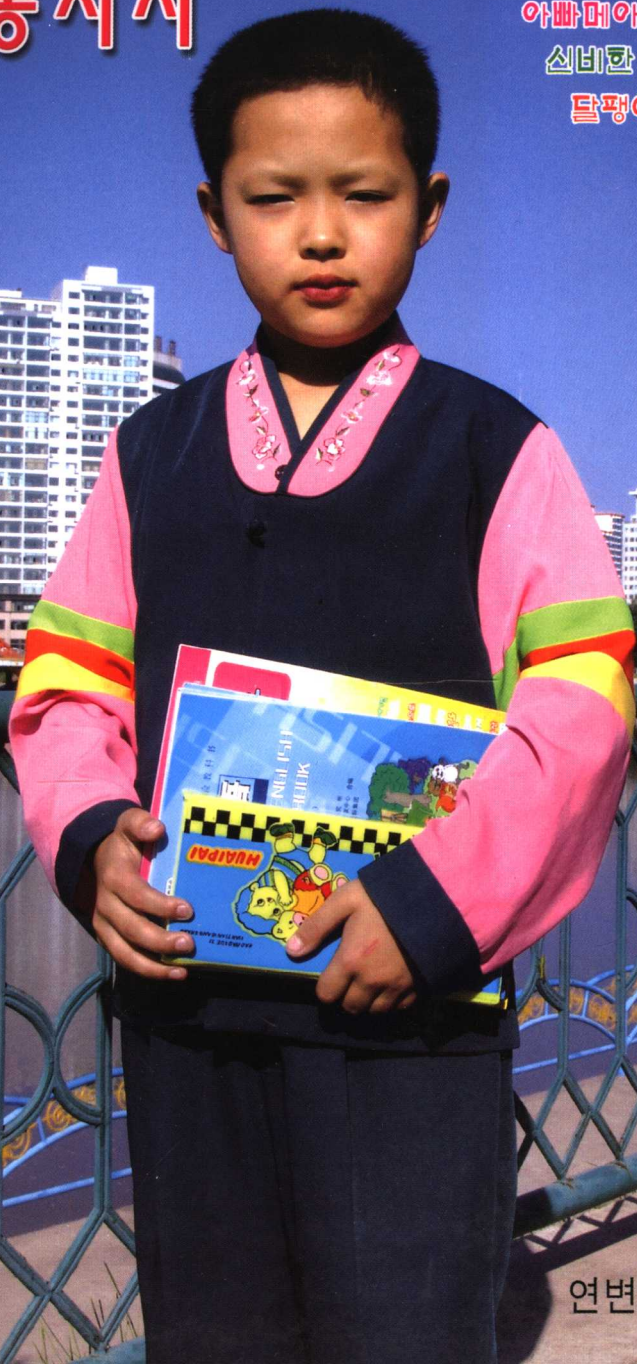
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
아동문학학회 회원작품집·5

입학통지서

아빠메아리

신비한 크레파스

달팽이동네의 이야기



연변인민출판사

울고 웃던 입학통지서

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아동문학학회 회원작품집 · 5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리태학
책임교정: 최순란

책임설계: 최 강
표지, 삽화: 최 강

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아동문학학회

회 장: 김현순
부 회 장: 권중철, 림 철
감 사: 김철호

기획국장: 최동일
사무국장: 김미란, 박성훈
사무간사: 김 휘

《울고 웃던 입학통지서》편집위원회

주필: 전복록,

편집: 박성훈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啼笑入學通知書 / 全福录主編. —延吉: 延邊人民出版社,
2006. 10
ISBN 7-80698-793-2

I. 啼. . . II. 全. . . III. 一儿童文学—作品综合集
—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 28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6) 第126799号

啼笑入學通知書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印刷: 吉林省图们市日升印刷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7 字数: 200千字

标准书号: ISBN 7-80698-793-2 / I · 125 (民文)

版次: 2006年 10月 第 1 版 2006年 10月 第 1 次印刷

印数: 1—500 册

定价: 15.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제1회 한·중<<용달샘>>아동문학상시상식 및 한·중아동문학세미나 이모저모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아
동문학학회 회장 김현순



한국 아동문학연구회 회장 엄기원



수상자 권중철



수상자 김득만



《한·중아동문학의 밤》축제의
한장면



한·중아동문학가 촬영



천하일미 어곡전쌀~!!!



청나라 말엽 강덕황
제에게 진상하였다는
어곡전의 어곡미, 오
늘은 상해 등 대도시
뿐 만 아니라 중남해
에까지 공급되고있어
그 위상을 한결 떨치
고 있다.

연계주소: 길림성 룡정시 개산툰진
광소촌 하천평툰

연계인: 오정묵

연계전화: 0433-325-6355

우편번호: 133400





소설

- 001 아빠메아리/ 김만석
- 058 비자루/ 정문준
- 085 달팽이동네의 이야기/ 김일량
- 115 오해/ 박영옥
- 205 알미운 남자애들/ 전복록

동화

- 016 신비한 크레파스/ 임은숙
- 099 흰토끼와 곰아저씨/ 리운학
- 109 엄지임금/ 하지요
- 122 어리석은 수탉/ 김상군
- 210 태양할아버지의 손녀/ 박흥률, 김을석

동시

- 051 리순근작동시 한바구니/ 리 순
- 176 꽃씨(외 4수)/ 지영옥
- 180 누가 더 굵니(외 1수)/ 지영옥
- 182 까마귀(외 2수)/ 지영호
- 184 응달샘과 진달래(외 1수)/ 정경남
- 186 해빛사랑(외 2수)/ 박성훈
- 189 할머니(외 2수)/ 박흥률
- 191 선풍기(외 1수)/ 류송천



동심과 함께 · 사랑과 함께

- 192 함박눈/ 림명숙
194 다림질(외 2수)/ 리종복
197 봄바람은 참 좋아(외 1수)/ 강성범
199 필갑통(외 3수)/ 박영희
201 해님(외 1수)/ 리운학
202 해야 가지 마(외 1수)/ 김규렬
204 아침등교길/ 위정호

수필:

- 021 울고 웃던 입학통지서/ 허경순
106 병풍산의 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김계옥
126 키에 담긴 사랑/ 지영호
217 나의 참외록/ 신정국

실화:

- 041 봄이 미소짓는 언덕/ 김현순

우화:

- 083 수탉과 장평/ 현명규

옛날옛적에:

- 026 두 형제의 이야기/ 최 용
072 젊은 스님의 지혜/ 정해철

특별기획:

- 129 한국아동문학연구회 회원작품특집

표지모델

선길시건공소학교 5학년 3학년 김정현



· 소 설 ·

아빠메아리

김 만 석

1

긴 복도이다. 아마 100미터는 훨씬 될것 같은 기인 복도, 5학년 2반 담임선생님이 교도주임실에서 아래우 파란 운동복을 입은 예쁜 녀학생을 앞세우고 복도에 나섰다.

《영애학생, 아버지는 뭘 하지?》

녀자애는 까만 고수머리아래 닭알모양의 발간 얼굴을 한들 쳐들고 반짝거리는 샛별눈으로 선생님을 할끔 쳐다보았다.

《그래, 뭘 하는거지?》

《저...경리...》

이렇게 대답하던 영애는 어쩐지 오른손바닥으로 자기의 입술을 토닥거리며 그렇게 고웁던 샛별눈을 꼬옥 감았다.

《그렇구나, 그럼 우리 반에 경리 자식이 아홉이나 되네.》

선생님은 영애를 앞세우고 5학년 2학급으로 들어갔다. 이미 대기하고있던 학생들은 영애가 들어서자마자 《우와 —》환성을 올리며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모두다 예쁘게 생긴 영애를 열정적으로 환대하여주었다.

영애는 얼핏 보아도 50명도 넘는 친구들을 둘러보며 가슴을 펴고 오펝 서있었다. 사실 농촌에 있을 때 영애네 학교는 복도도 없는 단층집이었고 영애네 학급은 모두 합하여 겨우 13명밖에 안되었던것이다. 그러나 그게 뭐 대수냐!

《동무들, 오늘 우리 학급에는 전영애라고 하는 학생이 전학하여왔습니다. 박수— 다시한번 환영합시다. 영애학생은 안도현 북흥소학교 5학년 반장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였습니다. 그리구 영애네 아빠는 경리로 일하는분이구! 영애학생, 몇마디 이야기 할가요?》

《제가요?》

《그럼요, 어서...》

영애는 한걸음 상큼 앞으로 나서며 《아함, 아함!》하고 복청을 가다듬었다.

《친구들, 전 <전영애>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모든 것을 다하여 영원히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꽃불<영>자는 아니구요! 친구들도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기를 기대합니다!》

뜻하지도 않은 박수소리가 교실에 들썩하였다. 어디서 이런 변설이 쏟아져나오나 친구들은 입을 하 벌리고 영애의 입만 쳐다보았다. 정말 산골아이치고 만만치가 않아보였다.

선생님도 손뼉을 짹짹 치다가 말쑼하였다

《영애학생, 저 뒤쪽 선화옆에 가 앉아요. 오늘부터 선화는 영애를 잘 도와줘야 해요.》

영애는 이렇게 되여 선화와 짝꿍이 되었다. 선화도 꽤나 예쁘게 생긴 아이였다. 그러나 영애 보기에는 자기보다는 예쁘지 않은 아이였다. 우선 자기처럼 고수머리가 아니고 눈꼬리가 처진게 곱지가 않았다. 그러니 영애는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

그런데 선화는 수업시간인데도 종이에 글을 쓱쓱 써서 영애한테 넘겨주었다. 영애는 처음부터 남에게 업신당하지 말자고 생각하였다. 이 쪽지를 지금 펼쳐보면 너무나 호락호락한 아이로 보일게 안야?

그래서 영애는 선화가 넘겨주는 쪽지를 일부러 호주머니에 슬그머니 집어넣고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체하였다. 하지만 선화가 쪽지에 뭘 썼는지 무척 궁금하기만 하였다.

휴식시간이 되자 영애는 선화의 쪽지를 꺼내여 읽어보았다.

— 영애야, 난 김선화야, 학급에서 문오위원이야. 우리 아빠는 삼성회사의 사장이야, 중국말로써 경리지 뭐. 그래 난 경리라는 <경>자를 따서 경1호야! 너네 아버지 무슨 경리니? 넌 아직 모를거야. 우리 반 아이들의 아버지들은 군대도 있구 간부도 있구 공인도 있구 뭐나 다 있어. 그가운데서 경리가 제일이거든! 넌 이젠 경9호야, 너희 아버지 회사가 크면 앞으로 넌 경5호도 될수 있구 경2호도 될수가 있어. 그러나 경1호는 절대 안되거든. 우리 아빠 회사가 영 커... 그러구 나의 이메일번호는 ksh@hanmail.net야. 이제부터 이메일로 연계하자. 알았지?

영애는 쪽지글을 읽으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아빠는 삼성회사 경리라구? 그래서 경1호? 돈 꽤나 벌겠는데?)

영애는 선화를 건너다보았다. 선화는 새하얀 이발을 뺑긋 드러내며 웃었다. 대단히 흐뭇해하는 표정이었다.

영애는 두눈을 지그시 감았다. 자기로도 왜서 눈을 감았는지 모른다. 선생님께서 이런걸 뭐라구 했었지? 그래, 주관조건과 객관조건이라구 하였지! 사실 영애는 주관적조건은 선화보다 훨씬 낫지만 영애의 객관조건은 선화보다 월등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것이다. 그렇다고 선화한테 질 영애는 절대 아니었다.

2

하루수업이 끝나자 선화는 영애를 이끌고 자기네 집구경을 가자고 졸랐다. 마침 영애네 집과 한길이여서 영애는 마지 못하여 선화를 따라나섰다.

선화네 집은 32층이나 되는 고층아파트였다.

《영애야, 우리 집은 저기 저 높은 18층에 있어. 함께 올라가보자꾸나, 승강기 타면 잠간이야!》

《오늘은 첫날인데 이다음 갈게.》

《너네 집은 몇층이니? 너 아빠두 경리니까 좋은 집이겠지?》

《무슨... 우리 집은 1층이야!》

《뭐, 1층? 아파트는 옳구?》

《그래, 우리 집두 댄티러우(电梯楼)지 뭐, 우리 아빤 1층이 더 좋다구 그래!》

《그래?》

영애는 또 손바닥으로 자기의 입술을 토닥거렸다. 오늘 벌써 두번째이다. 어떻게 되어 이렇게 말이 술술 튀어나가는지

자기도 모르겠다. 그래 선화한테 지지 말자고 하니 다른 방법이 더는 없다. 하지만 너무도 당돌한 행동을 하였다. 우둔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쏟아놓은 불을 다시 주어담을수는 없지 않는가!

농촌에 있을 때는 엄마가 보낸 돈으로 덩실한 빨간 벽돌기와집을 짓고 남부럽지 않게 멋지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을 팔아가지고 도시에 와서는 그만한 집도 살수가 없었다...

새 학교에 와서 이렇게 거짓말쟁이가 되다니? 영애로서도 깜짝 놀랄 일이다. 그러나 승벽심이 강한 영애로서는 남에게 절대 지고싶지가 않은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사실 영애네 엄마는 한국에 돈 벌러 나가서 7년간은 달마다 꼭꼭 돈을 부쳐왔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돈은 고사하고 전화런계마저 끊어지더니 올해 설날에는 아빠한테 리혼하자고 전화가 걸려왔었다.

정말 청천벽력같은 소리였다. 아빠는 처음에 두눈을 치뜨고 입을 하 벌리더니 《뭐라구? 리혼? 당신 변했어? 리혼?》 하다가 송수화기를 팽개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던것이다.

영애는 꿈같은 현실앞에서 그렇게 곱던 엄마의 모습을 그려보며 영영 울기만 하였다. 모두들 영애는 엄마를 닮아서 그렇게 곱다고 하였다. 아니다! 영애는 엄마를 닮은게 아니다. 영애는 아빠를 닮아 고수머리에나가 덩실한 코를 가졌다.

이젠 엄마는 다른 남자를 만날거지? 그럼 우리 아빠는? 아! 무정한 세월이다. 어쩌면 자기를 낳아기르던 엄마가 아빠를 배반하고 자기를 배반한단 말인가? 엄마는 나빠! 나쁜 엄마야!

대문을 열고 뜨락에 들어서니 옷동을 벗어내친 아빠가 대야에 물을 담아놓고 옷몸을 한창 씻고있었다. 하루종일 땀 흘리며 일한 아빠다.

《황제님, 물을 끼얹어드릴가요?》

《오냐, 우리 공주님!》

영애는 바가지에 찬물을 듬뿍 담아가지고 두손으로 땅을 짚고있는 아빠의 땀판같은 잔등에 쭈르르 쏟아부었다.

《푸푸... 어 씨원타. 후후후...》

아빠는 이럴 때 제일 즐거운 모양이었다. 하루종일 일한 피곤이 짝악 풀리는 모양이었다. 영애는 다시 물 한바가지 떠서 아빠의 잔등에 쭈르르 부었다.

《황제님, 자 또 부어요!》

《그래 우리 공주님, 인젠 됐어, 됐다니깐. 어서 들어가 숙제 해.》

집에 들어선 영애는 책가방을 구들에 활 던졌다. 그리고 구들에 엎디어 교도주임이 주던 《전학생등기표》를 꺼내었다.

워낙 아빠더러 써오라던 《전학생등기표》였는데 영애는 자기절로 쓰기로 작심하였다. 자기 이름부터 차례로 써내려갔다. 그다음은 아버지의 이름을 쓰고... 아버지의 직장은 어떻게 쓴담?

영애는 턱을 고이고 한참이나 생각하여보았다. 그렇다. 선화네 아빠는 《삼성회사》의 사장이라고 하였지? 삼성(三星)? 별이 세개란 말이다. 그래 우리 아빠는 《삼원공사》라면 어떨까? 동그라미 세개! 얼마나 그럴듯한 이름이야! 우리 아



빠가 뭐 선화아빠보다 못하여야 한다는 법은 없지! 《삼원공사》 경리? 옳아, 그래 《삼원공사》의 경리지! 영애는 정성들여 아버지의 직장을 《삼원공사》라고 쓰고 또 아버지의 직무를 《경리》라고 똑똑히 밝혀 써넣었다.

그다음은 어머니를 쓰는 란이다. 어머니의 이름? 영애는 눈앞이 아찔하였다. 엄마는 없다. 보기 싫은 엄마, 아빠를 배반하고 자기를 배반한 엄마!

이런 엄마를 어떻게 써넣는담? 그래서 영애는 엄마란에 《사망》이라고 써넣었다. 이 세상에 다시 없는 엄마니깐 사망이 아니고 뭔가?

영애는 이제 홀로 남은 불쌍한 아빠밖에 없다. 엄마가 한국에 간지 8년동안 자기를 위하여 모든 정성을 다 바친 아빠다.

지난번 맹장염에 걸렸을 때에도 아빠는 영애를 업고 병원에 드달려가지 않았던가? 땀을 창창 흘리며 영애를 불안고 뜨거운 눈물을 뚝뚝 떨어던 아빠! 영애는 아빠 목을 꼬옥 그러안고 《아빠》를 부른다는것이 그만 《엄마야!》하였다.

그때 흠칫 놀라는 아빠를 보고 영애는 얼마나 가슴 아팠던가? 그래서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하면서 수술실에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떼질 쓴 영애였다. 영애에게는 아빠가 엄마와 다름없었지만 《아빠》라고 불러야 할 그 순간 《엄마》라고 불렀으니 이 얼마나 미안한 일이었던가!

영애에게는 아빠만 있으면 그만이다. 이번에도 아빠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출세시키려고 농촌 벽돌기와집을 팔아가지고 도시로 이사오지 않았던가!

그래서 영애는 아빠를 언제나 어디서나 아끼고 사랑하고 싶었다. 남들 아빠보다 더 높이 모시고 더 자랑하고싶은 영애였다. 키썸이 장대하고 고수머리에 매부리코, 세상에 아빠만큼 멋진 사람이 있으면 어디 한번 나와보라지!

《우리 아빠 언제든지 최고야!》

4

그로부터 며칠 지난 어느날, 아침 일찍 학교에 가니 선화가 뽀로통하여 말하였다.

《경9호, 너 왜 이메일을 이틀씩이나 열어보지두 않니?》

《뭐? 아 — 그래. 우리 금방 이사와서 어디...》

《좋아, 오늘저녁엔 꼭 열어봐야 돼!》

《그렇게!》

사실 영애네는 컴퓨터가 없었다. 영애 이메일번호는 농촌

학교때 선생님이 만들어준거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늘 이메일을 열어보았고 또 pc방에 가서 수시로 열어본적은 있었다.

오후에 집에 돌아오면서 영애는 pc방에 들러 선화가 보낸 이메일을 열어보았다.

—경9호 영애야, 안녕하니?

넌 얼마나 예쁜지 몰라! 난 질투난다. 너 그 새물새물 옷는 색별눈을 날 주면 안 되나? 엉터리지, 난 이렇게 질투 많아. 하지만 난 너와는 질투 안해. 그저 그렇다는 말이지.

영애야, 우리 아빠두 경리구 너 아빠두 경리잖아? 그러니 우리 언제 아빠네를 모시구 식당에 함께 가면 안될까? 우리 아빠 통이 영 크다. 너 아빠두 물론 통이 클거야! 난 널 보면 너 아빔 알만하거든!

그런데 요즘은 안돼! 우리 아빠가 한국에 출장간거야. 한 보름 지나면 우리 아빠 돌아온다. 우리 아빠 돌아오면 내가 우리 아빠와 먼저 말할게. 그때까지 기다려! 나의 작공 경9호야, 안녕!

경1호 선화로부터

뭐? 선화네 아빠 한국에 출장갔다가? 그럼 서울에 갈거 아니야? 선화네 아빠더러 서울에 가서 우리 엄마를 붙잡아오게 하면 안될까? 얼마든지 될거야! 그런데 선화 보고 어떻게 그런 말을 꺼낸담?

영애는 선화한테 보내는 이메일을 쓰기 시작하였다.

—선화야, 너의 이메일을 반갑게 받아보았다.

너네 아빠가 한국에 갔다지? 한국 어디야? 서울이니? 서울이면 내가 너 아빠한테 부탁할 일이 있는데… 래일 보자.

경9호 영애로부터

이렇게 선화는 《경9호》라는 이름으로 처음 선화한테 이메일을 보내었다. 《경9호》, 그건 아빠가 경리니깐 얻을수 있는 번호였다. 그것도 선화가 달아준 번호였다. 《경9호》가 되었기에 영애는 지금 학급에서 남에게 업신당하지도 않고 도리어 상대접을 받고있지 않는가! 그건 순전히 아빠때문이었다.

그러던 영애는 선화에게 이메일을 보낼걸 얼마나 후회하였는지 모른다. 무슨 부탁? 엄마를 붙잡아오라는 부탁? 얼마나 유치해! 그래두 한때는 엄마였는데. 선화네 아빠더러 우리 엄마를 붙잡아오게? 자존심 강한 영애는 도리머리를 쳤다.

그런데 이메일에 어떤 부탁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다행스러웠다. 그건 래일 빙빙 둘러대면 얼마든지 되는 일이야! 여기까지 생각한 영애는 자기 스스로도 똑똑한것 같았다. 어찌된 영문인지 도시학교로 전학하여오니 영애는 머리가 슬슬 잘도 돌아가는것 같았다.

5

아침 일찍 일어나보니 오늘은 류달리 찌뿌둥한 날씨였다. 어제저녁 TV천기예보에서 비 온다더니 정말 비 올 날인가본다.

아니나 다를가 오후수업을 마치고 퇴교할무렵, 갑자기 번개가 번쩍, 우뢰가 파르릉—궁팡! 울부짖더니 대줄기같은 소낙비가 억수로 쏟아져내렸다. 아이들은 《와 —》겁부터 내면서